

현대방곡호, 풍랑 뚫고 美해안서 조난자 구조

〈현대상선 소속〉

빗줄에 몸 묶어 미국인 2명 구해

현대상선 소속 컨테이너선이 조난자 2명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13일 현대상선에 따르면 '현대 방곡호'의 선원들이 미국 서부 해안에서 조난한 보트 앤(ANNE)호에 탑승하고 있던 미국인 2명을 구조해 미국 해안경비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현대 방곡호는 '미국인 2명이 탄 보트가 북북서 9마일 지점에서 표류 중으로 난파 직전'이라는 미국 해안경비대의 긴급 무전을 받고 현장으로 이동했다.

현대 방곡호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거센 풍랑과 3m의 높은 파도로 인명구조용 보트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빗줄에 몸을 묶은 선원이 직접 외벽계단을 통해 조난 보트에 접근해 무전을 받은 지 73분만에 구조에 성공했다.

한편, '현대 방곡호'는 램차방(태국)→바리



구조된 조난자 2명(뒷줄 왼쪽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이 '현대 방곡호'에서 하선하기 직전에 노창원 선장(뒷줄 오른쪽 첫 번째)을 비롯한 선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상선

어봉따우(베트남)→카오슝→부산→로스앤젤레스→오르랜드→부산→카오슝→홍콩을 경유하는 6800TEU급 컨테이너선으로 23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악천후 속에서 조난자를 모두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정기적으로 수행해온 비상대응훈련에 철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KEB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포드콜 13일 경기 용인 레이크사이드CC에서 열린 KPGA 코리아투어 KEB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포드콜에서 선수들이 우승상품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리우안웨이, 무토도시노리, 위창수, 박상현, 양이봉, 김승현, 고다이다 쓰야. /KEB하나은행

KT 토크콘서트 '청춘해' 라디오 공개방송

KT는 23일 서울 삼양동 문화비축기지에서 'KT 청춘氣UP 토크콘서트 #청춘해(이하 #청춘해)'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청춘해'는 KT가 2016년부터 젊은 세대를 응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토크콘서트다. 지난해까지 누적 관람객 4만명을 돌파했다.

이번 #청춘해 콘서트는 MBC FM4U와 함께 여름 특별기획 공개방송으로 진행된다. MC인 '푸른밤 이동진입니다'의 DJ 이동진 영화평론가는 심야 시간대에 섬세하고 감성적인 진행으로 젊은 청취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공개방송은 오는 30일 푸른밤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이번 콘서트에는 소설가 김중혁과 FM 영화음악 DJ인 영화배우 한예리가 청춘 토크를 진행한다. 또 K팝스타 출신 정승환, 심어송라이터 옥상달빛, 인기 아이돌 여자친구, 실력과 아티스트 자이언티 등 가수가 출연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콘서트 전에는 '페이스 스티커' 제공하고 '1분 초상화' 이벤트도 연다. 또 '보물찾기' 이벤트로 현장 경품을 증정한다.

KT 홍보실장 윤종진 부사장은 "이런 폭염 속에 학업, 취업 준비 등으로 청춘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콘서트를 통해 청춘들이 함께 모여 일상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방통위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차단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자정 노력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방통위는 오는 9월 5일까지 100일간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집중 모니터링 및 불법유통 정보 필터링 상시 작동여부를 집중점검하는 한편, '몰카' '국산' '국노' 등 디지털성범죄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제목으로 사용하는 성인물에 대하여 저작영상물임을 명확하게 표시

하는 등 금치어 서비스 검색결과를 개선하고, DNA 필터링기술의 연내 적용 계획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차단을 위한 정부대책에 관하여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 설명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 요청 등에 대한 웹하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디지털 성범죄 자정 활동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청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자에 대한 처벌 강



방통위 관계자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차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방통위

화방안 등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웹하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오늘의 운세 6월 14일 (음 5월 1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하는 법이다. 60년생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우선 출발을 하자. 72년생 부모님의 건강이 염려되니 안부 전화 드려라. 84년생 인수 운이 있으니 교섭이나 거래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 소** 49년생 때 맞추어 자손에게 기쁜 일이 생긴다. 61년생 마음을 좋게 먹어야 대인관계에서 적이 없는 법이다. 73년생 새로운 이성이 다가오나 내 것이 아니니 주의. 85년생 남쪽으로 길을 잡으면 손재수가 있다.
- 호랑이** 50년생 운이 호전되어 금전과 사랑이 따르는 하루. 62년생 7년 큰 가뭄에 단비를 만나듯 기쁜 날이다. 74년생 투자나 매매는 불리하니 다음 기회에. 86년생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네.
- 토끼** 51년생 몸 건강도 챙겨야지만 마음 건강에 유의. 63년생 가까운 불은 먼데 물로 끌 수 없다. 75년생 상처는 나어도 흉터는 남는 법이다. 87년생 우는 아이는 굶지 않은 법이니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라.
- 말** 52년생 세월이 가도 마음은 항상 청춘으로 살자. 64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으면 좋겠다. 76년생 공과 사를 구별하여 올바르게 일 처리할 때. 88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일이 잘 풀린다.
- 뱀** 53년생 행운이 가까이 있다. 65년생 좋은 옷을 입었으나 밤길을 가니 봐주는 사람이 없다. 77년생 급하게 서두르면 후회가 막급이다. 89년생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내가 인정받으니 마음을 굳게 싸라.

- 말** 54년생 둘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 66년생 주변이 시끄러울 수 있는데 뜻밖의 행운이 기다리고 있다. 78년생 집이나 말이나 가족을 일찍이 돌아온다. 90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 양** 55년생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따르지 않는다. 67년생 명쾌하고 신뜻한 출발이 좋은 결과를 맺는다. 79년생 파란색이 행운을 주니 넥타이 나 손수건을 파란색으로. 91년생 마음먹은 대로 밀고 나가면 된다.
- 원숭이** 56년생 어제는 내 사람 오늘은 모르는 타인. 68년생 직장의 변동 수가 있으니 마음을 다잡을 때이다. 80년생 비호기과 진로가 있을 수도 있겠다. 92년생 시작이 반이라 했으니 우선 시작하고 결과는 천천히.
- 닭** 57년생 자녀와 불화가 있으면 대화로 풀어라. 69년생 건강이 우선이니 먹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81년생 사람과의 관계는 예의가 중요하다. 93년생 새로운 직장에서 연락이 오니 능력을 발휘할 때이다.
- 개** 58년생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70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지니 매사에 조심하라. 82년생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94년생 우물에 갇힌 물고기 신세처럼 답답하기 그지없는 하루이다.
- 돼지** 59년생 지금은 힘들어도 미래를 바라보고 노력해야 하는 날. 71년생 붉은색이 행운을 가져다준다. 83년생 오늘은 무슨 일든 시작해 보자. 95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이 오고 건강도 최고조이니 상쾌하다.

김상회의 4季 인생길에 단점 보완하기

"회사에서 임원이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임원을 꿈꾸던 남자가 상담을 청한 건 징계를 받은 다음이었다.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뛰어왔는데 징계라니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감봉 1개월이라는 어찌 보면 그리 대단하지 않은 징계 같지만 임원이 되고 싶은 사람으로서 타격이었다. 잘 짜놓은 인생길에 갑자기 큰 바위가 굴러 떨어진 격이었다. 재무팀장인 남자는 중견기업에서 부장급으로 일하고 있다. 부하 직원에게 경기도 총괄업무를 맡기고 최대한의 믿음을 실어줬다. 그런데 부하 직원이 횡령을 시도하다 발각이 됐고 해고를 당했다. 상담을 청한 남자는 업무능력이 좋았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것이다. 사주에 강한 인수(印緩)가 자리하고 있는 그는 직장에서 잘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다. 책임감이 강한 인수 사주는 어느 직장에서나 반기는 스타일이다. 더구나 그의 사주에는 주변에 항상 안아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 힘겨운 일이 생겨도 쉽게 넘어가는 운세이다. 그런 사주를 지녔을 때는 차가운 성품으로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는 그렇지도 않았다. 상담을 온 남자는 기토(己土)일주로 정이 많은 성격을 갖고 있다. 마음이 따뜻하고 한번 신뢰가 쌓인 사람은 철저히 믿는 게 그의 또 다른 장점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장점인 정 많고 사람을 잘 믿는 성품이 한편으로는 단점이 된다. 남에게 잘 속을 수 있고 사람을 잘못 판단하면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 다행이었던 점은 부하 직원이 공금을 횡령하기 직전에 발각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다행인 건 그를 대체할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직은 없다는 점이다. 그러니 다시 신임을 얻는 것 하나에만 중점을 두면 될 것이다. 직장 운이 좋으니 임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분명하다. 사주에 인수가 없다면 옆에서 도와주는 커닝 경쟁자만 준비하게 생기는 상황을 만난다. 건너고 건너도 계속 높이 나타나는 형상이다. 운이 받쳐주는 그에게 남은 것은 사람관리를 더 세심히 하는 일이다. 아무리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믿음을 주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이제는 자기만의 사람쓰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하 직원에게 일을 맡기면서 믿음을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사람을 믿는 것에 더해 관리라는 또 하나의 카드를 같이 들고 있어야 한다. 장점 속에 숨어있는 단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아야 한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2		3			6
	2	9	6	1	8	4	3	
3	1	5				9	8	2
7	6	8				5	4	1
	5	6	8	3	9	2	7	
9			1		7			8

2			9		1			7
3	9	7			4		2	1
					3			
8					5			3
	5	9					8	4
1					7			9
					1			
9	3	1			2		5	7
4				3		5		2

스도쿠 정답								
6	1	5	9	7	2	8	3	4
8	9	2	3	1	5	7	6	4
7	2	6	8	9	5	1	4	3
1	7	3	6	5	8	9	2	4
5	9	2	1	8	5	7	6	3
2	8	6	9	7	2	5	1	4
4	7	8	1	9	6	3	5	2
5	2	8	7	6	1	4	9	3
2	8	1	5	6	9	2	7	4
7	2	5	8	3	9	1	6	4
9	6	2	1	7	3	8	5	4
6	5	9	7	2	8	4	1	3
1	7	8	5	9	2	6	5	3
5	2	6	5	1	7	9	8	4
9	6	7	2	8	1	4	3	5
8	1	2	9	7	5	2	6	4
4	9	8	1	8	6	5	7	3

문제 제공= 보누스